

존재론의 범위와 책무: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박 준 호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콰인의 존재론적 기획의 윤곽을 보이고자 했다. 이 기획의 핵심에는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이 있다. 그의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에 관한 논의는 20세기 영미 철학계에서 존재론 탐구의 기준과 방법에 방향을 제시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더 큰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 기준을 제시할 때 그는 진정으로 존재론에 종사한 것인가?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존재론이 철학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러 층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콰인의 논의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테면, 존재론적 개입의 적절한 기준을 찾아나가는 일은 상위 존재론에 속하는 작업이며, 실질 존재론인 이런 기준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전자를 위해서는 의미론적 상승이 필요하며, 후자를 위해서는 존재론적 하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논의의 결과, 콰인의 존재론 관련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사소하거나 중요한 오해도 제거될 수 있다. 존재론적 개입이 진리조건을 요구한다는 오해가 가장 심각하지만, 이 오해를 통해 성공한 존재론적 개입의 조건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해명이 진행되면서, 더 일반적으로는 존재론의 범위와 책무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주요어】 콰인, 존재론,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 의미론적 상승, 존재론적 하강

1. 머리말

철학자는 문제를 해소하거나 해결할 뿐 아니라 문제를 던져주기도 한다. 20세기 영미 철학계에서는 좌인 때문에 존재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그는 존재론 탐구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oy & Davidson 2012). 그가 이렇게 분석 형이상학의 길을 열고 난 후에야, 분석 형이상학은 여러 중요한 계기, 이를 테면, 스트로슨의 기술(descriptive) 형이상학, 크립키와 퍼트남의 본질주의, 호주 철학자 중심의 진리제조사(truth-maker) 원리 등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Glock 2002, p. 238).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에 관한 논의는 더 많은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는 존재론에 종사했는가? 아니면 그저 의미론에 종사했는가?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그에 대한 여러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존재론의 여러 층위(layers)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겠다. 존재론 역시 철학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러 층위를 갖고 있으며, 그의 논의가 어떤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히겠다. 존재론적 개입은 존재론의 수준에서, 그리고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은 그와는 다른 층위의 일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존재론의 범위와 책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더불어, 이런 논의를 진행하다보면, 좌인의 존재론 관련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사소하거나 중요한 오해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폐가수스는 존재한다.”는 문장이 아무런 존재론적 개입도 하지 않는다는 오해는 사소한 예일 것이다. 그리고 심각하게는 존재론적 개입 기준의 성분으로 진리조건이 필요하다는 오해를 논의할 것이

다. 더불어 그가 언어만을 다루면서 존재를 다룬다고 보는 것도 그에 대한 큰 오해이다. 그의 존재론적 기획은 본성상 존재론적이기 때문이다.

2. 존재와 존재론

세계에 존재하는 것,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 존재하지 않았다가 존재하게 되는 것과 이에 대한 생각, 신념, 주장, 이론은 서로 구별된다. 전자를 “존재론적 사태”¹⁾로 부를 수 있고, 후자를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다.²⁾ 다음과 같이 존재론은 존재론적 사태에 관해 말한다. (여기서 ↓ 화살표는 “...에 관한”을 뜻한다.)

-
- 1) 여기서 “사태”는 대상, 사물, 속성, 상태, 사건, 사실 등을 전부 의미하도록 느슨하게 사용하겠다. 물론 철학자에 따라서는 존재가 속성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의 진짜 초점은 속성인지 여부가 아니라 1차 속성인지 2차 속성인지 여부이며, 이런 관점에서 앞의 묘사가 정확하다. (Nelson 2012.) 어떤 심사위원은 “존재론적 사태”라는 표현대신에 “존재자”를 쓰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 “-자”가 어떤 대상, 사물 등에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어서 느슨한 표현을 쓰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 2) 그런데, 존재론을 이렇게 묘사한다면, 철학과 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힉스입자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힉스입자는 존재한다.”거나 “힉스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일 역시 존재론에 종사하는 일이며, 명백히, 이런 일은 물리학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하는 존재론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물론 철학과 과학의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며, 콰인의 자연주의의도도 정확하게 이것이다. (Quine 1951b, p. 64.) 존재론은 철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불편한 경우에 우리는 일반성이나 추상성의 정도차이에 의해서 철학과 과학의 구분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도 철학과 과학은, 콰인의 말대로, 정도에서 다를 뿐 다른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고전적인 용어를 도입하여 물리학은 “특수 존재론”이며, 철학에 속하는 존재론은 물리학의 존재론 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일반 존재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존재론

...가 있다.

존재론적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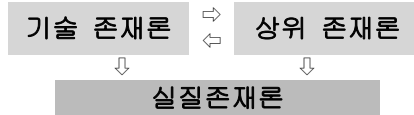


나아가 존재론도 논리적 층위를 달리 할 수 있다. 철학적 물음과 이에 대한 답은 적어도 세 층위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기술적(descriptive) 층위, 실질적(substantive) 층위, 상위(meta) 층위이다. 무어(G. E. Moore)가 이런 구별을 윤리학에 관한 구분으로 제시했고, 라제로비츠(M. Lazerovitz)가 형이상학에 적용했다(박준호 2011). 형이상학의 중요한 일부(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존재론 역시 기술 존재론, 실질 존재론, 상위 존재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³⁾

이 가운데 실질 존재론은 존재에 관한 실질적 주장으로 구성된다. 기술 존재론과 상위 존재론은 모두 실질 존재론에 관해서 언급한다.⁴⁾ 기술 존재론은 어떤 사람이나, 학과, 국가, 문화권 등이 갖고 있는 기존의 실질 존재론(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 상위 존재론)을 기술, 보고, 설명한다.⁵⁾ 상위 존재론은 실질 존재론(뿐 아니라 기술 존재론)에 동원되는 기초 개념의 의미, 정당화와 설명의 방법에 초

-
- 3) 형이상학과 존재론의 관계에 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겠다.
- 4) “상위” 철학은 “...에 관한”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술 철학 역시 실질 철학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 철학은 이와 달리, 실질 철학(또는 기술 철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탐구와 그 정당화 구조에 관한 탐구로 제한된다.
- 5) 어떤 심사위원은 “기술 존재론”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본고의 목적상 의도적인 태만이다. 기술 윤리학이 윤리적 원리에 관한 보고, 기술, 설명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이 윤리학이 윤리적 원리에 관한 사회학, 인류학, 또는 심리학이듯이, 기술 존재론은 존재론에 관한 사회학, 인류학, 또는 심리학이다. 이것이 철학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언급을 적게 제시한 이유이다. 하지만 철학사는 일종의 기술철학이면서도 철학의 고유한 분야이다. 다시 말해서, 윤리학사나 존재론의 역사 등은 철학의 내부 영역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존재론의 역사를 다루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점을 두어 논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존재론 자체의 본성에 관한 탐구를 진행한다. (아래의 화살표 역시 “...에 관한”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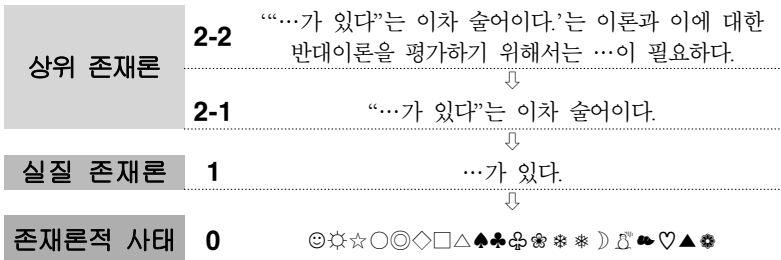


실질 존재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무엇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진술로 구성된다. “X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X가 존재한다.” 또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일은 존재론에 종사하는 것이다. “보편자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보편자가 존재한다.”거나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일은 보편자에 관한 존재론에 종사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실재(reality)에 관한 물음으로 취급된 문제 역시 실질 존재론의 문제이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이데아”라고 답한 플라톤은 실질 존재론에 종사했다. 물질주의나 관념주의 역시 이에 답하고자 했다. 또한, 이 보다 온건하게 존재하는 것의 종류 즉 범주를 묻거나, 범주 상호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 역시 존재문제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10개의 범주가 있으며, 이 가운데 실체의 범주가 가장 근본적이며, 나머지 귀속성(attributes)에 해당하는 범주는 실체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파생적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실질 존재론에 종사했다.

이에 비해서, 예를 들어, “존재”라는 말의 의미나 존재 개념에 대한 탐구는 상위 존재론(meta-ontology)⁶⁾에 속하는 문제이다. 또한

6) “meta-ontology”라는 용어는 반 인와겐(van Inwagen 1998)이 명확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런 용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로젠크란츠(Rosenkrantz 1998, p. 252)는 상위존재론이라는 철학의 하위 분야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위존재론의 문제가 실은 언어철학에 속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윤리학을 비롯한 철학에서 각 주제에 관한 언어철학적

실질 존재론(또는 때로 기술 존재론)의 정당화 방법 등에 대한 탐구 역시 상위 존재론의 관심사이다. 더 나아가 상위 존재론 내부에서도 층위가 존재한다. “있다”는 술어가 일차 술어인지 여부에 관한 논쟁은 상위 존재론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쟁 가설, 즉 이 문제에 관한 긍정 주장과 부정 주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묻는 일은 술어 “있다”에 관한 문제에 관한 문제로서 그 층위가 구별된다. 이를 종합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화살표는 “...에 관한”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론”으로 옮기는 영어 단어 “ontology”는 다의어이다. 먼저, 앞에서 말한 존재론적 사태에 해당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7)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존재하는 사물의 집단이나 총체를 뜻한다(Hofweber 1999, p. 3; Oliver 1996, p. 2). 둘째로, 우리가 통상 옮기는 “존재론적 사태에 관한 신념, 주장, 이론, 탐구” 등

문제 또는 논리학적 문제를 해당 주제와 관련된 상위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기에 반 인와겐의 용어법은 충분히 정당화된다.

7) 이렇게 어떤 용어가 일차(first-order) 용법과 이차(second-order) 용법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은 영어의 경우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철학에서도 “logic”은 “논리”와 “논리학”을 의미할 수 있으며, 철학에서는 “윤리학”을 의미하는 “ethics”가 일상어에서는 “윤리”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technology”는 “기술”과 “기술학”을 모두 의미할 수 있으며(Ferré 1995, pp. 49-50), “history”는 “역사”와 “역사학”, “psychology”는 “심리”와 “심리학”을 의미하는 등 여러 예를 찾을 수 있다.

의 의미 즉 존재론을 의미할 수 있다. 셋째로, 상위 존재론을 뜻하도록 사용되기도 한다. 결국, 앞에서 말한 존재론적 사태, 존재론, 상위 존재론을 모두 뜻하도록 사용된다. 이런 용법이 동일한 언어 직관을 소유한 사람끼리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다른 언어 전통에 속해있는 우리 같은 독자에게는 이런 애매성이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우며, 더 나아가 혼란스럽다.

콰인의 글에서도 이런 다의적인 용법은 쉽게 발견된다. 우리가 콰인이 쓴 하나의 글(Quine 1951)만 선택해서 살펴보더라도 첫째와 둘째의 의미로 각각 해석가능한 맥락을 발견하게 된다.⁸⁾ 또한 콰인에 따르면 “ontology”는 주로 존재론적 개입(ontological commitment)을 연구한다(Hofweber 2011). 그런데, 이어서 밝혀졌지만, 존재론적 개입 자체는 실질 존재론 층위의 일이고, 이에 관한 연구는 상위 존재론의 일이다. 따라서 그에게 “ontology”는 상위 존재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콰인의 용어법은 철학에서는 관례였다. 다시 말해서, 철학에 관한 철학을 “상위 철학”이라고 따로 부르지 않고, “철학”으로 불러왔다. 물리학의 본성과 방법론에 관한 학문은 물리학 철학이지만, 철학에 관한 학문은 철학에 속한다. 그래도, 의미상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콰인의 “ontology” 용어법은 삼중의 다의성을 띠고 있다.

이런 용어의 애매성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질 존재론과

8) 콰인(Quine 1951)의 p. 11에서 그는 “The ontology to which an (interpreted) theory is committed comprises all and only the objects over which the bound variables of the theory have to be construed as ranging in order that the statements affirmed in the theory be true.”라고 말한다. 이 글에서 “ontology”는 일차용법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같은 글의 p. 14에서는 “The ontology of a theory is a question of what the assertions say or imply that there is.”라고 말한다. 둘째 글은 분명히 이차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같은 p. 13에서 “doctrine of what there is”를 “ontology”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상위 존재론의 구분에 부주의하게 된다면 콰인의 작업을 오해하게 된다. 콰인의 다음 말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그러므로 존재론적 논쟁이 언어에 관한 논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Quine 1948, p. 31)

당연하게도 “언어만을 다루면서 존재를 다루고 있다.”(이좌용 1986, p. 217)고 하거나, 그가 존재론은 상위 존재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이명숙 1994, p. 53; pp. 57-58)고 오해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글의 전후를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한 “존재론적 논쟁”이란 존재론에 속한 논쟁이 아니라 “존재론에 관한” 논쟁이다. 그는 “ontological”이나 “ontology”라는 낱말의 사용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이런 오해를 받기 쉬웠지만, 존재론 수준의 논쟁과 상위 존재론 수준의 논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Quine 1948, pp. 30-31). 또한 콰인의 다른 글(Quine 1947, pp. 132)을 예로 보자.

나는 존재가 언어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려 사항은 존재론적 사태가 아니라 논의의 존재론적 개입이다.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 사용에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언어 사용에 의존한다.

그는 존재하는 것,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즉 존재 주장, 그리고 존재 주장의 성격에 관한 것(즉 언어 사용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3. 존재 주장과 존재론적 개입

다행히도, 우리말은 “존재”와 “존재론”의 명확한 구별을 갖고 있

다. 후자는 전자에 관한 연구이거나 이론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전자를 “존재론적 사태”로 부르기로 했다. 우리는 존재론적 사태에 관하여 말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과정과 결과가 실질 존재론이다. 실질 존재론의 주된 과업은 존재론적 사태의 존재여부나 이 사태의 속성에 관한 서술이다. 존재론적 사태가 존재한다고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진술은 존재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진술이다. 긍정하는 진술을 “존재 진술”, 부정하는 진술을 “비존재 진술”이라고 부르자. 이 각각의 진술이 “주장하는” 바는 “존재 주장”과 “비존재 주장”이다. 물론 이 각각의 진술을 통해 사람이 “주장하는” 행위도 “존재 주장”과 “비존재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존재론적 사태의 존재를 긍정하는 주장 즉 존재 주장을 “존재론적 개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존재론적 개입은 존재 주장이다(Hodges 1970, p. 105).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는 존재 주장은 소크라테스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한다. 우리가 존재론적 개입을 회피하는 방법은 소크라테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비개입은 비존재 주장으로 이루어진다.

100만보다 큰 소수들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수들을 포함하는 존재론에 개입한다. 켄타우로스들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켄타우로스들을 포함하는 존재론에 개입한다. 그리고 페가수스가 있다고 말할 때는 페가수스를 포함하는 존재론에 개입한다.(Quine 1948, p. 22).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점은 존재론적 개입도 존재 주장처럼 어떤 존재론적 사태가 존재한다는 진술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진술을 믿거나 발언하는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존재 주장과 존재론적 개입이 평행하므로, “존재론적 개입”이라는 표현이 왜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존재 주장”이 어떤 존재론적 사태의 존재에 관한 명시적인(explicit) 언어 행위이거나 그 언어 행위의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존재 주장은 전혀 명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대머리이다.”와 같은 표현은 겉보기에 존재 주장이 아니지만 존재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대머리라는 주장이 옳다면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 소크라테스의 속성에 관련된 주장이 존재 주장은 아니지만 존재론적 함축을 갖고 있으며, 이를 묵시적인(implicit) 존재론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⁹⁾

이와 반대로, 겉으로 보아 존재 주장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겉보기 그대로의 존재 주장이 아닐 수 있다. “빨강은 존재한다.”는 문장은 빨강 보편자의 존재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가? 겉보기 존재론적 개입과 진정한 존재론적 개입 개념(Quine 1947, p. 133; Macdonald 2005, pp. 36-37; Daly 2010, p. 90; Hylton 2007; Cooper 1966, p. 125)을 도입하여 이를 잘 구분할 수 있다. 콰인의 모든 초점은 일상적 언어와 과학 언어의 겉보기 존재론적 개입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론적 개입을 찾는 데 모아진다. 겉보기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존재론적 개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겉보기와는 다른 존재론적 개입의

9) “명시적/묵시적”은 여러 사람이 제안했다(Michael 2008; Jackson 1980; Gochet 2007; Peacock 2011). 여기서는 Michael (2008)에 가장 유사한 뜻으로 사용한다. 잭슨과 고셋이 사용한 의미는 본고와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잭슨은 일상 언어로 이루어지는 개입을 모두 묵시적이라고 하고, 양화사와 변형으로 이루어지는 개입을 명시적이라고 했다. 고셋 역시 비슷한 용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양화사 표현이 일상의 은폐된(hidden) 존재론적 개입을 폭로한다고 말한다. 호즈(Hodes 1990)는 “얇은/두터운”(thin/thick) 개입을 구분한다. “얇은” 개입은 어떤 이론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따라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 두터운 개입은 어떤 이론이 옳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피록은 호즈와 비슷한 구분을 각각 ‘명시적/묵시적’이라고 한다.

경우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도 존재 “주장”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했을 것이다.

따라서 존재론적 개입이란 목시적인 존재 주장을 포괄하고, 겉보기 존재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다. 이에 충분히 주의한다면, “존재 주장”과 “존재론적 개입”을 바꿔서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두 표현이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하는 일은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 다름 아니라, 존재론적 개입이 존재 주장과 같은 논리적 수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존재론적 개입이나 존재론적 비개입에 종사하는 일은 존재 주장이나 비존재 주장에 종사하는 일과 같은 수준의 일이다. 존재론적 개입과 비개입을 표현하는 진술은 존재나 비존재 주장을 표현하는 진술과 똑같은 논리적 층위를 갖는다. 이들은 실질 존재론의 진술이며, 이 진술을 주장하거나 이 진술로 존재론적 개입을 실행하면 실질 존재론에 종사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사람과 진술(즉 이론)의 존재론적 개입이나 존재 주장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론의 존재론적 개입이나 존재 주장으로 논의를 한정하겠다. 우선, 사람의 존재 주장이나 존재론적 개입은, 대체로, 내용으로서의 진술, 즉 이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Jackson 1980, p. 303).¹⁰⁾ 또한 사람이 진지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게 되거나, 진지한 태도를 취했지만 이론의 진정한 존재론적 개입에 대해 무지할 수도 있다(Quine 1947, pp. 132-133). 이 때문에 존재론적 개입을 주제로 삼을 때, 주장의 내용인 진술 즉 이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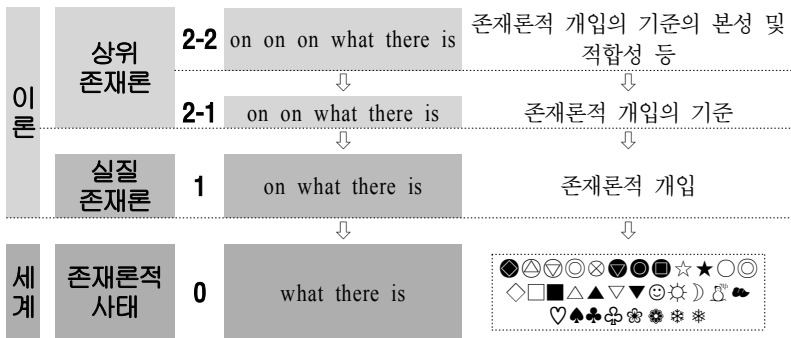
10) 그러나 존재 개입이 반드시 언어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콰인은 지각을 통해서도 존재론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Quine (1983), p. 501. 그리고 주관적인 신념 역시 존재론적 개입에 종사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신념이 언어를 통해 표현된 진술의 존재론적 개입만을 다루겠다. 본문에서 지적된 대로, 신념 소유자의 성실성 여부나 무지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개입이 중심 문제이다.

4.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

1) 의미론적 상승

앞에서 말한대로, 콰인이 “ontology”를 말할 때, 그가 의미하고자 하는 일은 주로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이다 (Hofweber 2011). 물론 그는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존재론적 개입을 시도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에 존재론적 비개입을 시도하지만, 다시 말해서 실질 존재론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주로 존재론적 개입 자체의 성격에 관한 여러 주장을 하고자 한다. 그는 어떤 경우에 존재론적 개입이 성립하는지 판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존재론적 개입은 존재론적 사태에 관한 주장이며, 존재론적 개입 기준은 존재론적 개입에 관한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제시하고 마름질하는 일은 실질 존재론의 책무가 아니다. 이런 기준 제시는 존재론적 개입에 관한 일이므로 상위 존재론에 속한다. (여기서도 ↓화살표는 “...에 관한” 뜻한다.)



그렇다면 왜 상위 존재론이 필요한가? 물론 상위 존재론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질 존재론과 연관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콰인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의미론적 평면 위에서 일해야 할 이유가 있다”(Quine 1948, p. 30)고 말한다. 먼저, 경쟁하는 존재론의 차이를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다. 상대방의 존재 주장의 특징을 드러내어, 어떤 점에서 상대방의 존재론과 다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 둘째로는 논쟁의 공통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존재론에 관한 우리의 기본적인 논쟁이 단어 및 단어와 관련된 것들에 관한 의미론적 논쟁으로 번역될 수 있는 한, 논쟁이 선결문제를 요구하는 일은 연기된다.”(Quine 같은 글, p. 31)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형적인 예가 신의 존재 문제에 관한 존재론적 논쟁일 것이다. “존재”의 의미가 이 논쟁의 성패를 좌우한다. 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성립 여부는 그것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에도 의존한다. 이런 일은 콰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콰인과 다른 존재론을 갖는 여러 철학자는 “be”와 “exist” 동사를 구별하고자 하지만, 콰인 자신은 둘이 동의어¹¹⁾라고 생각한다(van Inwagen 1998; Stokes 2005, pp. 8-9). 실질 존재론이 따로 성립한다고 해도, 이런 층위의 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실질 존재론에서 사용되는 낱말의 의미 등에 대한 상위 존재론의 탐구가 필요하다.

존재론적 개입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것에 관한 존재 주장을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해서 진리성 여부를 따지고자 한다. 그러나 콰인에 따르면 이들

11) 이는 콰인이 피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두 낱말이 사용된 문장이 서로 동치”라고 하면 된다.

이 우리의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다. 과학을 포함한 일상적 존재 주장과 속성 주장은 겉보기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존재 주장 자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존재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일 이전에 중요하다. 존재 주장 즉 언어에 관한 이런 상위 존재론적 관심이 바로 콰인의 의미론적 상승(semantic ascent)의 주된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아가, 의미론적 상승은 위 그림의 2-1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존재론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듯이, 존재론적 개입 기준에도 경쟁이 존재한다. 경쟁 존재론을 평가하는 예비 작업으로 존재론적 개입 기준을 논의해야 하는 것처럼, 경쟁 존재론적 개입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기준“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이것은 각 기준을 기술하는 수준의 탐구가 아니며, 그 의미나 정당화의 맥락에서 탐구를 포함하므로 일관되게 “상위”라는 이름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¹²⁾

2) 일상적인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

콰인은 진정한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다. 겉보기 존재론적 개입과 진정한 존재론적 개입을 구분해줄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겉보기에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진술이 실은 존재론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성립되는 경우만 있다면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보자는 시도는 그야말로 무가치하다. 그렇지만 우리 언어의 특징은 이런 탐구를 요구할 만큼 복잡하다.

12) 콰인은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에 관한 논의 역시 존재론의 책무로 보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콰인의 “ontology”는 4중의 다의성을 갖고 있다! 이런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Quine 1948)의 제목이 “On What There Is”인 이유는 아마도 의미론적 상승이 상승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보다는 정확한 존재론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먼저 일상적인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앞에서 말한대로 명시적/묵시적 개입을 구별할 수 있겠다. 뻔하고 명확한 존재론적 개입을 명시적인 존재론적 개입이라 할 수 있겠다. 그에 비해서 겉보기에는 존재 주장이 아니지만 존재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주장을 제시하여 존재론적 개입을 시행하는 경우를 묵시적인 존재론적 개입이라 하겠다. 이론의 명시적인 존재론적 개입과 이론의 묵시적인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론의 명시적인 존재론적 개입기준

어떤 것에 관한 존재 주장이 바로 존재 개입이므로, 어떤 것에 관한 존재 주장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주장은 명시적으로 그것의 존재에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동등한 진리조건과 논리적 구조를 갖는 문장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론의 묵시적 존재론적 개입기준

어떤 이론이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함의하면, 그 이론은 그것의 존재에 개입한다.

“소크라테스는 있다.”는 문장은 소크라테스의 존재에 명시적으로 개입한다. 또한 “100만보다 큰 소수들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수들을 포함하는 존재론에 개입한다. 켄타우로스들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켄타우로스들을 포함하는 존재론에 개입한다. 그리고 페가수스가 있다고 말할 때는 페가수스를 포함하는 존재론에 개입한다.”(Quine 1948, p. 22). 우리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진술을 사용하여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므로, 해당 진술 역시 그것의 존재에 개입하게 된다.

나아가, 묵시적인 존재론적 개입은 바로 겉보기에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문장의 존재론적 개입을 드러내준다. 어떤 이론이 명시적으로 존재 주장을 하지 않지만, 존재 주장을 함축

할 때 그 이론은 존재론적 개입을 하는 셈이다. 다음과 같은 속성 귀속 문장을 보자.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이 문장은 주어-술어 형식의 문장으로서 소크라테스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문장이 옳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존재해야 한다. 누군가 이 문장을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런데 콰인은 이런 직관적인 기준을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는 문장에서 존재론적 개입을 담당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주어인 “소크라테스”이거나 술어인 “...는 존재한다.” 둘 가운데 하나이거나 제 삼의 다른 후보일 수 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 있는 낱말이 존재론적 개입을 담당한다면,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유의미하고 옳다면, 유명한 플라톤의 수업 문제가 생긴다.

페가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유의미하며 또한 옳다. 앞의 기준에 따를 경우, 명시적 기준에 위배되지만 묵시적 기준을 통과한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유의미하고 옳은데, “페가수스”라는 이름이 존재론적 개입을 책임질 경우, “페가수스가 존재한다.”는 진술을 함축한다(Quine 1948, pp. 14-15). 그렇지만 위 문장이 옳기에 페가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¹³⁾ 나아가, “버클리 대학의 그 둥근 사각형 지붕은 없다.”는

13) 콰인은 이 문장을 통해 페가수스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근거를 두고 콰인의 주장에 따르면 “페가수스가 존재한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것 즉 모순된 것도 존재한다고 말하게 만든다(Quine 1948, pp. 17-18). 이런 역설적 상황에 책임이 있는 것은 이름에 존재론적 책임을 지우는 의미이론 때문이다.

그렇다면, 술어자리에 등장하는 존재 술어가 존재론적으로 책임 지면 된다. 그러나 존재 술어는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겉보기와 달리 소크라테스에 아무런 특성도 귀속시키지 못한다. 존재란 일차 속성이 아니라 속성에 관한 속성이다.¹⁴⁾ 만일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이름의 경우와 비슷한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만일 “...는 존재한다.”를 일차 술어로 보게 되면, “...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일차 술어이다. 그런데 일차 술어의 중요한 역할은 주어 자리를 차지하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을 서술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는 존재한다.” 뿐 아니라 “...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존재하는 어떤 것에 관해서 서술하게 된다. “페가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이 문장이 주장하는 바가 성립하려면, 페가수스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Miller 2002, §3).

3)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기준

그는 존재론적 개입의 일상적 기준이 부딪치는 문제를 회피하는 대안으로, 러셀의 기술이론을 택한다(Quine 1948, pp. 19-22). 이 이론의 핵심적인 착상은 논리적 재배치(logical regimentation)이다

다.”는 문장이 페가수스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페가수스”라는 이름이 존재론적 개입의 책임을 맡지 않는다는 것이다. “페가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장에서 페가수스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14) 이런 견해가 콰인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볼 근거는 다음에 보게 될 기술이론 때문이다. 기술이론은 이름의 언급문제 뿐 아니라 존재 술어가 이차 술어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다.

(Quine 1960, pp. 157-161). 이는 겉보기 존재론적 개입에서 진정한 존재론적 개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뵈아야 하는 일정한 절차이다(Daly 2010, p. 87). 이런 절차는, 달리 말해서, “번역”(translation), “풀어쓰기”(paraphrase)라 하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풀어쓰면, 원래 이론이 논리적으로 새롭게 배치된다. 그래서 논리적 재배치란 이런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의미한다. 논리적으로 재배치되기 이전 이론이 보여준 겉보기 존재론적 개입이 이 절차가 완료된 이론에서는 진정한 존재론적 개입을 보여줄 것이다.

러셀의 기술이론은 이름을 한정기술로 해석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따라서 이름이 포함된 진술을 한정기술이 출현하는 진술로 풀어쓸 수 있는 수단을 준다. “폐가수스”를 “벨레로폰에게 사로잡힌 날개 달린 그 말”로 바꾸면, “폐가수스는 존재한다.”는 문장은 “벨레로폰에게 사로잡힌 날개 달린 그 말은 존재한다.”로 바뀌어 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콰인은 일상의 “존재한다.”는 술어가 논리학의 특수 양화사에 의해서 완벽하게 표현된다고 믿는다(van Inwagen 1998, pp. 237-241). 이렇게 존재술어를 양화사가 담당하게 되면, 이 술어가 이차 술어 즉 명제함수를 서술하게 된다. 존재론적 개입을 이름이 담당하거나 일차 용법의 존재술어가 담당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게 된다. “하나의 실재로 간주된다는 것은 순전히 변항의 값으로 간주된다는 것일 뿐이다.”(Quine 1948, p. 27). 이렇듯, 콰인이 보기에, 러셀의 기술이론은 이름과 일차 존재술어가 빛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을 모면하게 해준다.

콰인이 제시하는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¹⁵⁾

15) 이 기준은 여러 다른 문장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어떤 주어진 종류의 실재는, 한 이론에서 긍정되는 진술이 참이 되기 위해서 그 실재들 중 어떤 것이 변항의 값으로 간주되어야 할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그 이론에 의해 가정된다.”(Quine 1947, p. 132). (“해석된) 이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

한 이론은 그 이론 안에서 만들어진 긍정문이 참이 되기 위해 그 이론의 속박 변향이 지칭할 수 있어야 하는 실재에 그리고 그 실재에만 개입한다(Quine 1948, p. 28).

이 기준은 명시적 개입과 묵시적 개입에 모두 해당한다. 그가 생각하는 한 이론의 존재론이란 그 이론이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함의하는 것에 관한 물음”(Quine 1951, p. 14; 1983, p. 499)이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을 보자.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 (Socrates exist.)

이 문장이 옳으려면 소크라테스가 존재해야 하므로 이 문장은 소크라테스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한다. 콰인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이 대목에서 등장한다. 그가 이 문장의 존재론적 개입을 부정한다는 식의 생각이다. 이는 오해이다. 그가 반대한 것은 이 진술이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술이 겉보기 방식 그대로 존재론적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겉보기 인상과는 달리 이 문장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나 ‘...는 존재한다.’는 술어가 소크라테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를 명확히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재배치의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정기술 문장이나 동일성 문장으로 번역과정이거나 문장이다. (다음의 가로방향 화살표 “ \rightarrow ”는 분석, 번역, 풀어쓰기 등을 의미한다.

론이 개입한 존재론은 이 이론 내에서 긍정된 진술이 옳기 위해서 그 이론의 속박 변향이 치역으로 삼는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모든 대상을, 그리고 오직 그 대상만을 함유한다.”(Quine 1972, p. 558). 그렇지만, 콰인의 여러 형태의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을 갖는지 여부는 논란거리이다. 여기서는 같은 취지로 가정하겠다.

이 관계가 실질동치, 논리적 동치, 실질함의, 논리적 함의 등인지는 논란거리이다(Daly 2010, pp. 89-98). 여기서 이런 논점은 접어둔다.)

①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

⇒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그 사람은 존재한다. (The teacher of Plato exists)

⇒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그 사람이 있다. (There is the teacher of Plato)

⇒ 누군가가 플라톤의 스승이었으며, 그 밖에 어떤 것도 플라톤의 스승이 아니었다. (Someone is a teacher of Plato and no one else a teacher of Plato.)

⇒ $(\exists x)(Tx \cdot (y)(Ty \supset x=y))$

②

소크라테스는 존재한다.

⇒ 소크라테스화된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There is a such thing that it is socratesized).

⇒ $(\exists x)(x=a)$

두벌의 문장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라고 간주된다. 둘째 기호 표현에서 ‘a’는 소크라테스라는 개체를 나타낸다. 위에서 변항 x는 특수양화사에 속박되어 있으며, 이 문장이 옳기 위해서는 속박 변항의 값 즉 소크라테스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소크라테스의 존재에 개입한다.¹⁶⁾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라는 개체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어떤 것에 개입한다. 원래 문장이 단칭 진술인 것처럼 보였으나, 양화사 표현은 일반 진술이다.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는 존재론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소크

16) 위 문장과 동치 표현으로 ‘ $(\exists x)((\exists x)Ax)$ ’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 $(\exists x)Ax$ ’는 ‘소크라테스화하는(Socratesize) 단일한 x’를 의미한다. Haack (1978), p. 64. Quine (1948), p. 21에는 페가수스 문장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라테스의 존재에 개입한다.) 결국 어떤 이론의 존재론적 개입을 책임지는 부분은 특수양화사이다.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두 별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것을 택했다.)

$$(\exists x)\{x=a \cdot Wx\}$$

이 문장에서 $(\exists x)(x=a)$ 가 도출되므로, 이 문장은 소크라테스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며, 존재론적 개입을 하게 된다.

이런 재배치 절차를 거치다 보면, 겉보기에 존재론적 개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이 사라질 경우, 존재론적 환원이라고 한다. 이런 환원의 압력에서 살아남은 것이 그 이론의 진정한 존재론적 개입의 대상이다.

빨강은 색채이다.

이 문장은 빨강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듯이 보인다. 이 문장이 옳기 위해서는 빨강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다음처럼 번역될 수 있다.

$$(x)(Rx \supset Cx)$$

어떤 것이 빨강다면 그것은 모두 색채를 띠는 것이다. 이런 번역 속에는 특수 양화사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원래 문장은 빨강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물론 이 진술을 다음과 같은 동치 문장

으로 번역할 수 있다.

$$\sim(\exists x)\sim(Rx \supset Cx)$$

이 문장에서 양화사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나, 빨강지만 색채를 띠지 않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을 존재한다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긍정 문장이 이렇게 번역의 압력에서 버터내야 한다는 취지는 앞의 기준에 이미 함축되어 있지만, 더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론 속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에 관한 말을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는 다른 말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다면, 해당 이론은 문제의 대상에 관한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에는 다른 언어로 풀어써지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¹⁷⁾ 피변역문장과 번역문장의 진리조건이 같아야 하는 것도 역시 존재론적 개입 기준에 포함된 내용이다(Daly 2010, 90). 두 문장의 진리조건이 변경된다면 두 문장을 제대로 바꿔쓰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문장의 논리적 형식도 같아야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문장은 더 나은 논리적 형식을 반영해야 한다(Daly 같은 곳). 존재론적 개입을 밝힐 때, 양화사와 변항을 포함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콰인의 제안은 바로 이런 점을 전제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의 기본 성분을 명세하는 일은 상위 존재론2-1의 중요한 책무이며, 또한 상위 존재론2-1에 관한 탐구 역시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상적 기준보다 콰인의 기준을 선호해야 하는가? 또한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제

17) 김세화 (2004)는 이 조건을 사람의 존재론적 개입 기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그가 인용하는 기준을 소개하고 있는 콰인(Quine 1947, p. 133)의 맥락은 이 조건이 이론의 개입 기준에도 해당함을 짐작하게 한다.

시하는 문장은 존재론적 사태에 관한 진술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문장인가? 예를 들어, 퍼트남은 이런 기준을 지적인 정직성의 표현으로 본다(Putnam 1998, p. 425).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겠다면, 지적인 이중 사고를 범하는 것이다(김세화 2004, p. 141).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 개입 기준은 정합성을 유지하라는 합리성의 요구를 표현하는 규범이다(Stokes 2005, p.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아무튼 이런 대답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상위 존재론2-2의 책무일 것이다.

5. 존재론적 하강

1) 존재론적 개입 기준과 진리조건

어떤 이론이 존재론적 개입의 성공은 그 개입이 옳을 경우이다. 그렇지만, 존재론적 개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런 성공은 오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보자.

- 어떤 개는 희다.
- ⇒ 개인 어떤 것은 희다.
- ⇒ 개이면서 흰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 ⇒ $(\exists x)(Dx \ \& \ Wx)$

원래 문장의 존재론적 개입이 불분명했다. 이를테면, 개가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주장을 함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풀어쓰기를 시도한 결과 개나 흰 자체에 존재론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Quine 1948, pp. 27-28). 특수 양화사와 변항으로 표현된 문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희면서 개인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존재론적 개입의 성공이라면, 다음 문장 역

시 존재론적 개입에 성공한 문장이다.

페가수스가 날아간다.
 $\Rightarrow (\exists x)\{x=b \cdot Fx\}$

번역문의 b는 페가수스의 이름이다. “F”는 “날아간다”는 술어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문장은 페가수스가 존재한다는 문장을 함의한다. 최종 문장에서 우리는 ‘ $(\exists x)(x=b)$ ’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문장의 일상적 의미는 ‘페가수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문장은 동일한 진리조건을 갖는다. 또한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갖는다. ‘페가수스가 날아간다.’는 문장은 페가수스가 포함된 존재론에 개입한다!

콰인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또 이 대목에서 발생한다.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기준은 위와 같은 문장의 엉뚱한 존재론적 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의 바램과는 달리, 콰인의 기준은 이런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목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존재론적 개입 기준은 존재론적 개입을 명료화할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래도 이런 기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대책이 있다. 그런 문장을 실제로 제거하는 것이다. 즉 진리조건을 존재론적 개입 기준에 추가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치섬은 이런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Chisholm 1976, pp. 117).

어떤 옳은 문장이 어떤 대상의 존재에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로부터 실제로 그러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일 (i) 어떤 대상의 존재를 개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있고, (ii) 이 문장의 진리성을 우리가 알고, (iii) 이 문장의 진리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러한 대상에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는 문장으로 바꿔 쓸(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상정하지 않는 것보다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¹⁸⁾

김영정(1986, p. 55)은 이 각각을 존재개입의 “외견적 형태 구비 조건, 진리성 조건, 바뀌쓰기(환원) 불가능 조건”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진리성 조건을 추가할 경우 폐가수스 문장의 존재론적 개입을 제거할 수 있다. 폐가수스 문장은 그르며, 따라서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

김영정(같은 글, p. 59)은 콰인의 기준을 인용하면서 콰인과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콰인도 역시 진리성 조건과 바뀌쓰기 불가능성의 조건을 상정하고 있고, 단지 존재 개입의 외견적 형태조건에 대한 해석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대목이 바로 존재론적 개입과 그 기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오류이다. 김영정의 치섭에 대한 해석이 옳다면, 치섭 역시 같은 오류를 범했다. 치섭에 따르면 “지금까지 예화되지 않은 많은 자동차의 형태들이 있다.”는 문장은 존재 개입의 외견적 조건을 만족시키며,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많은 자동차를 만들 것이 확실하므로 진리성 조건도 만족시키고, 류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는 동등한 문장을 바뀌쓰지 못한다. 따라서 형태와 같은 보편자가 존재한다고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짓는다.

또한 김영정(같은 글, p. 55)은 “등근 사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등근 사각형이라는 지시어귀가 있으며 또 참인 문장이므로 치섭의 기준 중 셋째 조건에 미달하므로 “등근 사각형은 …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문장이 존재론적 개입에 실패하는 이유는 셋째 조건을 어겨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양화사와 변항을 사용한 문장으로 번역가능하다. 다만, 이 문장이 그 자체로 등근 사각형이 존재하지

¹⁸⁾ 김영정(1986, p. 55)의 번역임.

않는다고 주장하며, 바로 그 때문에 등근사각형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콰인(Quine 1948, p. 22) 자신이 바로 이 예를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존재론적 개입을 위해서는 진리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진리성 조건과 관련이 있다.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진리성은 조건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이론이 옳은 경우에 그 이론의 존재론적 개입은 이러저러할 것이다.’ 진리성은 존재론의 목적이다. 존재론적 개입은 존재론적 사태가 존재한다는 주장이기에 이 주장이 옳기를 목적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은 어떤 존재 주장이 존재론적 개입을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일 뿐이다.¹⁹⁾ 이 기준에 의거해보면, 앞의 페가수스 문장의 존재론적 개입은 성립했으나, 옳지 않은 문장이기에 즉 그른 존재 주장이기에 존재론적 개입에 실패했다. 또한 “등근 사각형은 존재한다.”는 문장은 등글고 사각형인 어떤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주장이므로, 만일 이 문장이 옳다면 등글고 사각형이 어떤 것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진술은 그러므로 결국은 실패한 존재론적 개입 즉 그른 존재 주장이다.

콰인이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찾아 올라간 것은 의미론적 상

19) 의심쩍은 것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회피하려면 과학적 탐구가 필요하고, 논리적 재배치만으로 부족한데도 콰인은 논리적 재배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는 글록(Glock 2002, p. 257)의 입장도 이와 동일한 혼동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플로지스톤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회피하려면, 과학적 탐구가 필요하지 논리적인 풀어쓰기로 부족하다. 그러나 그는 진리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를 동일 평면에 놓고 있다. 이런 풀어쓰기를 존재론적 환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환원의 결과는 콰인의 바램대로 존재론의 수축(deflation)만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팽창(inflation)을 가져올 수 있다 (Daly 2010, p. 95). (루이스(Lewis 1973, p. 84)가 가능세계 실재론을 주장하면서 존재론의 팽창을 목적으로 풀어쓰기 개념을 이용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콰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존재의 수축과 팽창이 아니라 존재론의 수축과 팽창이라는 점이다.

승이었다.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찾는 일을 비롯하여, 존재론적 개입에 개입하는 것은 언어에 관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존재에 관한 진리를 찾을 수 없다(이좌용 1986, p. 210). 그는 이런 자각을 여러 군데에서 피력했다. 앞서서도 이미 인용을 했다(Quine 1947, p. 132). 그는 다른 곳(1948, 31; p. 30)도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논쟁이 언어에 관한 논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존재하는지가 단어들에 의존한다는 결론으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 한 질문이 의미론적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그 질문이 언어적임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밖의 사람의 주어진 견해 혹은 학설이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속박 변항을 보게 된다.

그리고 다른 글(1983, p. 499)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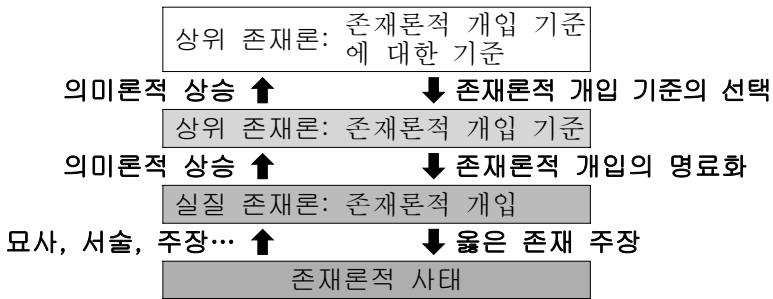
언어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물음이 있다는 식으로 반박 받았다. 맞다. 하지만, 무엇이 있다고 말하거나 함의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속박 변항의 자리이다.

2) 존재론적 논증의 일반도식

존재론적 개입은 존재 주장이다. 따라서 존재론적 개입의 성공은 명료화에 머물지 않고, 옳은 존재 주장일 때 달성된다.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이 하려는 일은 어떤 주장이나 이론의 존재론적 개입을 명확히 드러내는 일이다. 따라서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이 하고 있는 일 즉 존재론적 개입에 대한 검토만으로 존재론이 완결되지 않는다. 의미론적 상승 전략의 기본 목적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존재론 내부의 견해 차이를 일관되게 드러내며, 존재론 내부의 논쟁이

순환에서 벗어나 공통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Quine 1948, pp. 30-31). 따라서 의미론적 상승은 존재론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완결이 아니다. 실질 존재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위 존재론의 탐구를 이용하라!²⁰⁾

존재론에 종사하려면, 의미론의 영역으로 상승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의 영역으로 하강해야 한다.²¹⁾ (여기서 위아래 화살표는 “상승”과 “하강”이라는 표현을 보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시간적인 순서도 아니며, 논리적인 순서도 아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을 표시한 것도 아니다. 어느 지점에서나 논의는 시작될 수 있다.)



20) 치섭의 혼동은 존재론적 개입의 명료화와 진리 탐구를 같은 평면에 놓은 점이다. 콰인은 여러 군데에서 존재론이 의미론이라고 했는데(예를 들어, Quine 1951), 이는 상위 존재론 즉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에 관한 탐구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치섭의 착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의 혼동은 존재론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존재론을 상위 존재론에서 그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치섭은 바로 이런 소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소망이 혼동을 일으키게 만들었을 것이다.

21) 이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착상을 여러 저자가 내놓았다. 예를 들어, 드레츠키(Dretske 1977), 프라이스(Price 2004) 등이 이들이다. 드레츠키는 “존재론적 상승”을 말한다. 그는 콰인이 의미론적 상승을 이용하여 보편자 유명론에 편 데에 반대해서, 속성이 보편자라고 주장하는 보편자 실재론을 피력한다. 자연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편자가 필요하다. 콰인에 짝해서 이런 노선을 “존재론적 상승”이라고 이름 지었다. 프라이스는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의미론적 하강”이라고 칭한다.

우리는 존재론적 개입을 명료화하고 세계에 관한 옳은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 존재론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Gottlieb 1974, p. 587; 1980, p. 41).²²⁾ (이를 “존재론적 논증의 일반도식”(a scheme for general ontological argument, SO)이라고 부른다.²³⁾)

T는 옳다.

T는 K(에 속하는 것들)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므로 K(에 속하는 것들)가 존재한다.

이 도식을 이용하면 어떤 것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유명한 콰인-퍼트남의 수리적 존재자에 관한 불가결성 논증(indispensability argument)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퍼트남은 콰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입장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Putnam 1998, p. 425).

수학에서 다루는 것에 관한 양화는 형식과학과 물리과학에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양화를 용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수학적 것의 존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개입시킨다.

이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²⁴⁾

22) 잭슨(Jackson 1980, p. 308)도 이 논증을 인용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잭슨은 전제 둘의 순서를 바꿔 제시했다. 이런 차이는 논리적 차이를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탐구의 (시간적/논리적) 순서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경우 재미있는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은 변항의 값이다.’라는 의미론의 정식은 역으로, 한 주어진 견해나 학설이 선행하는 존재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는 데 사용된다”는 콰인(Quine 1948, p. 30)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잭슨의 도식은 콰인의 의도에 덜 부합한다.

23) 이 이름은 논자가 붙였다.

24) 퍼트남의 취지가 보다 잘 반영된 논증은 다음이다(김세화 2004, p. 140).

만일 현재 우리의 가장 나은 이론T가 K에 존재론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면,

만일 현재 가장 나은 이론 T 가 K 에 존재론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면, K 는 존재한다.
 현재 가장 나은 이론은 수학적인 것(mathematical entities)에 존재론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학적인 것들은 존재한다.

이 논증의 첫째 전제가 SO 이다. SO 의 일반도식의 첫 전제는 ‘현재 가장 나은 이론 T ’라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둘째 전제는 ‘이론 T 가 F 에 존재론적으로 개입되어 있다’에 표현되어 있다. 도식에서 두 전제가 불가결성 논증에서 첫 전제의 전건을 이룬다. 물론 도식의 결론이 조건문의 후건을 이루고 있다. 어떤 것의 존재를 주장하고 믿기 위해서는 논증의 두 전제가 모두 옳아야 한다.

이렇듯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통해서 어떤 이론의 존재론적 개입을 명료화하는 일은 존재론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이제 경쟁적인 존재론들을 어떻게 판정해야 하는가? 확실히 그 대답은 ‘존재하는 것은 변항의 값이다.’라는 의미론의 정식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다(Quine 1948, p. 30).” 존재론적 개입 즉 어떤 것에 관한 존재론적 긍정 주장이 옳다는 것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그런 종류의 것에 관한 옳은 이론이 필요하다.

물론 콰인의 존재론에 대한 오해와 이에서 비롯된 비난에는 근거가 있다. 존재론적 논쟁에서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미 옳다고 받

우리는 K 의 존재를 믿을 이유가 있다.

현재 우리의 가장 나은 이론은 수리적 존재자들에 존재론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리적 존재자들을 믿을 이유가 있다.

본문의 논증과 달리, 이 논증은 사람의 존재론적 개입을 표현하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본문의 논증이 더 강한 주장을 펴기 때문에 더 취약한 논증이지만, 여기서는 이론의 존재론적 개입만을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본문처럼 해석했다.

아들인 이론의 걸보기 존재론적 개입과 진정한 존재론적 개입을 가리는 일이다. 언덕 위에 빨간 집을 보면서, “빨간 집이 있다.”고 발언할 경우, 이 진술은 어떤 것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가? 보편자 실재론에 따르면, 이 진술은 빨강 보편자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고, 유명론은 이를 부정하면서, 빨강고 집인 것이 존재할 뿐 보편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리학의 법칙이 보편자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고, 이를 부정하는 철학자가 있다. 수학적 대상에 대한 앞의 논증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철학자가 있다.²⁵⁾ 이런 부류의 논쟁에서 주된 초점은 진정한 존재론적 개입을 찾는 일이고, 이런 일은 의미론적으로 상승된 층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다. 따라서 존재론을 하면서 주로 언어적 논쟁에 종사하는 셈이 될 것이다. (물론 존재론적 개입 여부만 따지지 않고, 단순성 원리나 동일성 조건 등의 다른 고려사항이 경쟁하는 존재론적 개입을 평가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될 것이다(Quine 1948).)

그렇다고 하더라도, 콰인의 존재론이 순전히 언어적이라는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콰인에 따르면, 세계에 관한 가장 나은 이론은 과학이며, 우리가 실질 존재론에 종사한다는 것은 상위 존재론에 종사하면서 과학의 성과를 참조하는 일이다. 그의 존재론에 대한 이런 해석은 그가 지지하는 자연주의와 잘 어울린다.²⁶⁾ 과학과 철학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철학을 분리하여 보는 일 역시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을 따

25) 자연법칙이 보편자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는 앞에서 말한 드레츠키 이외에도 암스트롱(Armstrong 1983)이 중요하다. 국내 학자로는 이좌용(2005)이 암스트롱에 동조하여 보편자에 관한 경험주의적 실재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필드는 자연법칙과 수학 모두에 관해 허구주의를 주장한다(Field 1980; 1989).

26) Dieveney (2012)에 따르면, 존재론적 개입과 존재론은 서로 별개의 목표를 갖고 있고 따라서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둘이 서로 다르며 별개로 평가된다는 것이 이 둘의 연계성을 깨뜨리지는 않는다.

른다(Quine 1950, p. 65)고 본다. 따라서 자연주의자로서 그는 현대 과학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현상주의와 물리주의가 실재에 관한 경쟁 존재론으로 취급하면서 물리주의를 택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일 것이다.²⁷⁾

6. 맺음말

본고에서는 과인의 존재론적 기획의 윤곽을 보이고자 했다. 이 기획의 핵심에는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이 놓여있었다. 이 개입의 적절한 기준을 찾아나가는 일은 상위 존재론에 종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찾아낸 기준을 이용하여 실질 존재론을 해나가는 것이 이 기획의 큰 즐거웠다. 이 가운데서 상위 존재론적 관심사로 초점을 이동할 경우 이를 의미론적 상승이라고 했고, 의미론과 과학의 협업으로 존재론에 종사하는 일을 존재론적 하강이라고 말했다. 본고의 주된 목적이 존재론적 개입과 관련한 그의 생각을 보다 정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기에, 존재론 기획 전체를 드러내보이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그가 보편자를 비롯한 내포적인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사용한 “동일성 조건”(identity condition)은 또 다른

27) 과학과 철학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그의 자연주의적 주장은 이중으로 지지 받을 수 있다. 첫째, 과학적 탐구 역시 의미론적 상승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과학의 원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철학과 비교했을 때 낮은 일반성을 띠는) 옳은 존재 주장을 발견하는 일이므로, 의미론적 상승 후에는 당연히 그에 존재론적 하강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과학의 이론이든 철학의 이론이든 평가의 기준도 비슷하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떤 한 존재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물리학 체계 같은 어떤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하다. 즉 최소한 우리가 이성적인 한, 우리는 원래의 경험의 무질서한 단편들이 조정되고 정리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개념적 틀을 채택한다. 우리가 일단 넓은 의미의 과학을 수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개념적 틀을 선택하면, 우리의 존재론은 결정된다.”(Quine 1948, p. 31)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준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드러내고 비판하여 콰인의 입장을 옹호하고자 했지만, 그의 존재론적 기획이 성공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여러 중요한 부분을 거느리고 있다. 예를 들어, 존재 개입이 특수 양화사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생각해보자. 콰인은 이 양화사가 영어의 일상어 “There is…”에 대응한다고 보았다. 이런 해석을 대상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해석 역시 가능한데, 대입적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더구나 일상어 “There is …”이 반드시 존재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며, 때로 콰인이 피하고자 하는 대상의 존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Jackson 1980, p. 301; Routley 1982, pp. 151-152). 또한 두 해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콰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Prior 1971, p. 68).

또한 반드시 논리적 재배치가 필요한지 여부도 문제삼을 수 있다. 존재론적 개입을 담당하는 부분이 일상어의 “존재한다.”는 술어(Azzouni 2004; Raley 2007) 또는 주어 자리에 등장하는 이름(Strawson 1959; 1974)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논리적 재배치에서 핵심은 여기에서 ‘ \supset ’로 표현한 관계이다. 만일 이것이 실질 함언이라면, 이 풀어쓰기는 실패이다. 어떤 함언이든 그 함언이 옳고, 전건이 그러면 후건은 언제나 옳다. 그러니 원래 문장과 새로운 문장은 진리치가 다르며, 진리조건도 다르다. 또한 논리적 함언(entailment)이라도 문제이다. 어떤 문장이든 제 자신을 논리적으로 함의할 것이므로, 어떤 원래 문장이든 바꿔쓰기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 문장의 존재론적 개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Jackson 1980, pp. 299-300). 물론 그에게 이런 논리적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옹호할 수 있겠으나(Stokes 2005, pp. 86-87), 이

에 대한 반대 논거는 콰인의 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앞에서 그가 러셀의 기술이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지적했었다.

그의 존재론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가 자연주의를 지지하며 또한 물리주의자이지만, 이런 입장이 지지되기 어려울 만큼 황당한 존재론의 사막을 초래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Decock 2004). 또한 그는 물리적인 개별자만 존재한다고 인정하고자 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수적 대상도 그의 존재론에 포함(Putnam 1998, p. 425)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비일관성을 떠는 실질 존재론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역시 큰 문젯거리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다양한 여러 비판에 노출될 수 있는 콰인의 존재론적 기획은 무가치한가? 무주택지는 집으로 인한 말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초라한 집은 작은 문제가 생길 뿐이지만, 대저택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골칫거리가 끊이지 않는 법이다. 콰인의 존재론은 다층 건물이며, 자신 이전에 활동했던 분석철학자의 무주택이나 초라한 건물에 비교할 때 장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의 존재론적 기획의 크기에 비례하여 여러 비판에 취약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 개입 개념과 그 기준은 콰인 이후의 존재론의 방법론을 바꾸고 새로이 세우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분석 형이상학의 체계적 특성을 보여준 중요한 시도였다. 이런 이유로 존재론과 관련된 그의 논의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여전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²⁸⁾

28) 본고는 “논리학의 형이상학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2013년 2월 20일에 전북 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논리학회 2013년 겨울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토론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여러 회원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더 나은 논문이 되도록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주었다.

참고문헌

- 김세화 (2004), “불가결성 논증과 존재론적 개입”, 『철학과 현실』, 제61호, 철학문화연구소.
- 김영정 (1986), “존재론과 양화논리”, 『철학연구』 제21집, 철학연구회, pp. 47-77.
- 박준호 (2011), 『철학과 형이상학』, 파주: 서광사.
- 이명숙 (1994), 『존재론의 상대성』, 서울: 서광사.
- 이좌용 (1986),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 『철학연구』 제21집, 철학연구회, pp. 197-221.
- 이좌용 (2005), 『존재론 연구 I』, 서울: 철학과현실사.
- Armstrong, D. M. (1983), *What is a Law of N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olos, G., ed. (1990), *Method, Reason and Language: Essays in Honor of Hilary Putn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rlmers, D. J., Manley, D. & Wasserman, R., eds. (2009), *Metametaphysics: New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Ont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Chisholm, R. M.(1976), *Person and Object: A Metaphysical Study*, Routledge Press.
- Cooper, N. (1966), “Ontological Commitment”, *The Monist*, vol. 50, no. 1, pp. 125-129.
- Dale, J., ed. (2007), *Companion to Philosophical Logic*, Blackwell Publishing Ltd.
- Daly, C. (2010),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Methods*, Broadview Press.
- Decock, L. (2004), “Quine's Ideological Debacle”, *Principia*, vol. 8, pp. 85-102.

- Dieveney, P. (2012), "In Defense of Quinean Ontological Naturalism," *Erkenntnis*, vol. 76, pp. 225-242.
- Dretske, F. I. (1977), "Laws of Nature", *Philosophy of Science*, vol. 44, pp. 248-268.
- Ferré, F. (1995), *Philosophy of Technology*, Athens, Georgia: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박준호 옮김 (2009), 『기술철학』, 경기도 파주시: 서광사.) [여기서는 번역서의 면수임]
- Field, H. (1980), *Science Without Numb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eld, H. (1989), *Realism, Mathematics and Modality*, Oxford, Basil Blackwell Ltd.
- Glock, H. (2002), "Does Ontology Exist?" *Philosophy*, vol. 77, pp. 235-260.
- Gochet, P. (2007), "Quantifiers, Being and Canonical Natation," in Jacquette D., ed. (2007), pp. 265-280.
- Gottlieb, D. (1974), "Reference and Ontology," *Journal of Philosophy*, vol. 71, no. 17, pp. 587-599.
- Gottlieb, D. (1980), *Ontological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 Haack, S. (1978), *Philosophy of Log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효명 역(1984), 『논리철학』, 서울: 종로서적.) [여기서는 번역서의 면수임]
- Hodes, H. T.(1990), "Ontological Commitments: Thick and Thin", In Boolos, G. ed.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5-260.
- Hodges, M. P. (1972), "Quine on 'Ontological Commitment'", *Philosophical Studies*, vol. 23, pp. 105-110.
- Hofweber, T. (1999), *Ontology and Objectivity*, Doctorial Dissertation in Stanford University.
- Hofweber, T. (2011), "Logic and Ontology", <http://plato.stanford>.

edu/entries/logic-ontology/

- Hylton, P. (2007), *Quine*, New York: Routledge.
- Jackson, F. (1980), “Ontological Commitment and Paraphrase”, *Philosophy*, vol. 55, pp. 303-315.
- Laurence, S. and Cynthia M., eds. (1998), *Contemporary Readings in the Foundations of Metaphys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Lewis, D. (1973), *Counterfactual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Nelson, M. (2012), “Existence”, <http://plato.stanford.edu/entries/existence/>
- Macdonald, C. (2005), *Varieties of Things: Foundations of Contemporary Metaphysics*, Wiley-Blackwell.
- Macarthur, D. and Mario D. C., eds. (2008), *Naturalism in Ques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Michael, M. (2008), “Implicit Ontological Commitment”, *Philosophical Studies*, vol. 141, pp. 43-61.
- Miller, B. (2002), “Existenc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09/entries/existence/>
- Oliver, A. (1996), “The Metaphysics of Properties”, *Mind*, vol. 105, no. 417, pp. 1-80.
- Price, H. (2004), “Naturalism without Representationalism”, in Macarthur, David & Mario De Caro, eds. (2008) (여기서는 다음 자료 참고 <http://prce.hu/w/preprints/naturalism-final.pdf>)
- Prior, A. N. (1971), *Objects of Thought*, Oxford: Clarendon Press.
- Putnam, H. (1998), “Philosophy of Logic”, in Stephen L. and Cynthia M., eds. (1998), pp. 404-434.
- Quine, W. V. O. (1947), “Logic and Reification of Universals”,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02-129.(허라금 옮김 (1993), 『논리적 관점에서』, 서울: 서광사.) [여기서는 번역서의 면수임]

- Quine, W. V. O.(1948), “On What There is”, *From A Logical Point of View*에 실림, 허라금 옮김(1993), 『논리적 관점에서』, 서울: 서광사. [여기서는 번역서의 면수임]
- Quine, W. V. O.(1950), “Two Dogmas of Empiricism”, *From A Logical Point of View*에 실림, 허라금 옮김(1993), 『논리적 관점에서』, 서울: 서광사. [여기서는 번역서의 면수임]
- Quine, W. V. O.(1951), “Ontology and Ideology”, *Philosophical Studies*, vol. 2, no. 1, pp. 11-15.
- Quine, W. V. O.(1951b), “Two Dogmas of Empiricism,” *From A Logical Point of View*에 실림, 허라금 옮김 (1993), 『논리적 관점에서』, 서울: 서광사. [여기서는 번역서의 면수임]
- Quine, W. V. O. (1957-1958), “Speaking of Objects”,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 31, pp. 5 - 22.
- Quine, W. V. O. (1960), *Word and Object*, Cambridge: MIT Press.
- Quine, W. V. O. (1981), “Ontology and Ideology Revisited”,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80, no. 9, pp. 499-502.
- Raley, Yvonne (2007), “Ontology, Commitment, and Quine's Criterion”, *Philosophia Mathematica*, vol. 15, pp. 271-290.
- Roy, T. and Davidson, M. (2012), “New Directions in Metaphysics”, *The Continuum Companion to Metaphysics*, Continuum, pp. 268-291.
- Rosenkrantz, G. (1998), “The Science of Being”, *Erkenntnis*, 48, pp. 251-255.
- Stokes, M. O. (2005), *Quinean Meta-Ontology and Fictionalism*,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http://etd.nd.edu/ETD-db/theses/available/etd-07082005-194210/unrestricted/StokesMO072005.pdf>
- Strawson, P. F. (1959), *Individuals: An Essay in Descriptive*

Metaphysics, London: Methuen.

Strawson, P. F. (1974), *Subject and Predicate in Logic and Grammar*, London: Methuen.

van Inwagen, P. (1998), “Meta-Ontology”, *Erkenntnis*, 48, pp. 233-250. (Charlmers, D. J., Manley, D. and Wasserman, R., eds. (2009)에 “Being, Existence and Ontological Commitment”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여기서는 원 논문 참조]

전북대학교 철학과, 전북대학교 인문연구원, 전북대학교 비판적사
고와논술연구소

Department of Philosoph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wlpark@jbnu.ac.kr

The scope and the task of ontology: Quine's ontological commitment

Joonho Park

Quinean “ontology” mislead us because it has been used ambiguously even in his single article. It can mean what there is, ie. ontological states of affairs, on what there is, ie. a study of them, or on on what there is, ie. meta-ontology. So it is natural to be confused when we try to fully understand what does Quine do by talking about ontological commitment and criterion of it.

We will discriminate these ontologies, and clarify the scope and the task of ontology as a discipline. Ontology is on what there is, meta-ontology is a study on ontology. Ontological commitment is a kind of ontological assertion within ontology, the criterion of ontological commitment is located in meta-ontological level.

As a result of this clarification, we can remove some obstacles to get a good grip on Quinean criterion of ontological commitment. Also, we are able to recognize ontological descent, the way by which Quinean substantive ontology proceed.

Key Words: Quine, Meta-ontology, Ontological commitment, Semantic ascent, Ontological descent